

#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의 書誌學的 意義에 對한 小考

金 準 泰 · 尹 暢 烈\*

## I. 緒 論

東洋醫學에 있어서 宇宙를 보는 自然觀과 人體의 生理, 病理에 對한 原理 및 診斷 治療 藥物 등에 對한 理論은 모두 陰陽五行으로 說明되고 있다.<sup>1)</sup> 宇宙에서 森羅萬象이 無窮한 變化를 일으키는 것은 陰과 陽이라는 異質的 二氣運이 지닌 바의 作用으로 因하여 矛盾과 對立이 나타남으로서 일어나는 現象을 變化라고 하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變化는 一定한 法則 아래서 變化를 維持하며, 變化의 本體가 陰陽인 것이다. 또한 變化狀態를 陰陽運動이라 하며 具體的 表現이 五行運動인 것이다.<sup>3)</sup> 五行의 法則이 自律적으로 變化하는 要因을 五運이라 하며 五運이 氣化作用하여 地球周圍에 集中하면 地球에서는 이것이 六氣로 變化하는 것이다.<sup>4)</sup> 人身은 小宇宙로서 이와 같은 陰陽五行의 運行法則 곧 五運과 六氣의 影響을 받으며 사는 存在인 것이다.

五運과 六氣를 흔히 略稱 運氣라 하여 이러한 運氣學說은 黃帝內經의 素問 運氣七篇에 主로 論하고 있으며 그 外에 六節藏象論, 刺法論, 本病論 等에도 論하고 있으며 時代의 背景에 따라 宋代 以後 性理學이 隆盛함에 漸次 運氣學說이 發達하였다.

醫學入門에서 “不通五運六氣 檢盡方書何濟 經絡明認 得標 運氣明認 得本 求得標 只取本 治千人無一損”<sup>5)</sup>, “噫 儒之道 博約而已矣 醫之道 運氣而已矣 學者 可不由此入門而求其蘊奧耶”<sup>6)</sup>라 하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1) 金完熙：漢醫學原論，成輔社，서울，1983，p. 22.

2) 韓東錫：宇宙變化的 原理，杏林出版社，서울，1990，p. 36.

3) 上揭書：p. 50.

4) 上揭書：p. 93，p. 112.

5) 李挺：國譯編註醫學入門(卷1)，南山堂，서울，1980，p. 200.

6) 上揭書：p. 276.

여 運氣의 重要性을 또한 可히 알 수 있다.

運氣學說이 우리나라에 傳來된 것은 高麗 때로 본다.<sup>7)</sup> 대체로 性理學이 尊崇되던 高麗末, 朝鮮初에 醫家들이 이 學說을 信奉하였던 것으로 思料된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分野의 專門書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肅宗에서 正祖에 걸쳐 살았던 儒醫 尹草窓의 草窓訣은 이 部分의 最初의 專門書로서 書誌學的 意義와 運氣學說의 理解에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草窓訣의 著者인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의 書誌學的 意義를 簡略히 살펴보아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尹東里(草窓)의 生涯

草窓訣의 著者, 尹東里의 字는 子美, 號는 草窓이며, 尹東里는 坡平尹氏 始祖 尹莘達의 26歲 孫 尹頤教의 2男 2女의 長男으로 李朝 肅宗 31年 乙酉年(AD 1705)에 出生하여 正祖 8年 甲辰年(AD 1784) 80歲의 나이로 卒한 醫家였다.<sup>10)</sup>

그의 生涯에 傳하는 바 詳細한 記錄은 없으나<sup>11)</sup> 그의 著書 草窓訣의 用藥謹序에서 “季父農寸先生은 聞于先君子讀易齋하고 不肖는 受於農村先生하여 吾家醫學이 三世而讀易齋先生은 才高學博하고 農村先生은 稟敏造銳로대 不肖는 質鈍識蕪하여 百不肖似而至於小技에도 亦無繼其萬一하니 後之人이 看此에 知吾家之醫淵之有素也리라. 不肖東里는 敬鈍하노라. 歲丙寅 仲夏라”<sup>12)</sup> 하여 그의 家系가 本來 醫家의 집안임을 알 수 있다. 尹東里의 父親은 尹頤教(AD 1680~1745)이며 字는 養而, 號는 讀易齋이며, 尹頤教의 동생이며, 尹東理의 季父인 尹雨教(AD 1695~1737)는 字는 時甫이며,<sup>13)</sup> 尹草窓은 季父 尹雨教로부터 學問을 배웠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은 모두 醫學과 文章을 한 이들로 思料된다. 尹東里의 號인 草窓은 原來 明代 儒醫 劉溥의 自號로서 劉溥은 宋代 性理學者 周濂溪先生을 恒常 思慕하여 窓 앞에 풀을 除去하지 않았다 하여 號를 草窓이라 했고, 또한 用藥에 있어서는 東垣의 學說을 主로 했다 한다. 尹東里가 또한 이 뜻을 따라 號를 草窓이라 하고 그의 著書 草窓訣 곧 圓機活法을 著述했다 한다.<sup>14)15)</sup> 尹東里의 親舊로 보

7) 金斗鍾·韓國醫學史, 探求堂, 서울, 1981, p. 165.

8) 上揭書·p. 349.

9) 三木榮: 朝鮮醫學史 及 疾病史, 富士精版印刷, 大版, 1963 p. 99, pp. 377~378.

10) 坡平尹氏魯宗派譜刊行委員會: 坡平尹氏譜(卷1), 農經出版社, 大田, 1983, p. 65.

11) 三木榮: 上揭書, p. 224, p. 378.

12) 尹東里: 草窓訣 漢城出版社, 서울, 1980, p. 32.

13) 坡平尹氏魯宗派譜刊行委員會: 上揭書, p. 65, p. 67.

이는 淡窩의 運氣衍論의 跋文에 보면 “余友尹君子美 早志于醫하야 發千載未發之見하며 繼千載未傳之緒하니 其所手著運氣論者는 若車指南이오 如龜坼兆라 其所以蔑如視之於世之紛紛于于 而扼腕大談於醫門者宜也라 雖然이나 醫是雜技오 君是正士也어늘 何可以正士而業雜技也리오 此余所以爲君하야 發一慨而勗之로라”<sup>16)</sup>라 하여 尹東里가 일찍부터 醫學을 하었을 뿐만 아니라 本來 儒家의 正士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運氣衍論序文에서 “歲崇禎再乙巳 七月上澣에 草窓道人 尹東里는 序하노라.”<sup>17)</sup>라 하여 이것이 그의 나의 弱冠 21歲 되던 해 英祖 1年에 著述되었음으로 보아 그의 醫學的 見解는 단지 現存하는 草窓訣만으로는 斷定할 수 없으나 可히 卓越했으리라 思料된다.

## 2. 尹草窓의 著述 및 書誌學的 意義

### 1) 尹草窓의 著述과 刊行

草窓訣의 構成은 크게 運氣衍論과 用藥으로 되어 있다. 이 冊의 이름은 草窓訣, 三理訣, 圓機活法, 運氣衍論 等이라 傳해지고 있는데 內容은 一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8)19)</sup> 草窓訣의 運氣衍論 序文에 보면 “歲崇禎再乙巳 七月上澣에 草窓道人 尹東里는 序하노라.”<sup>20)</sup>라고 하여 草窓訣의 運氣論의 主要部分인 運氣衍論의 著述이 李朝 英祖 1年(AD 1725年) 그의 나이 21歲 때임을 알 수 있고 運氣衍論의 끝 部分 淡窩의 跋文을 보면 “歲丙辰元月下澣에 淡窩는 跋하노라.”<sup>21)</sup>라고 되어 있어 運氣衍論 著述한 뒤 11年 後인 英祖 12年(AD 1736年)에 跋文을 記錄했음을 알 수 있어 이 때 冊을 刊行한 듯 싶다. 또한 草窓訣의 內容 中 用藥部分에 있어 用藥勳序를 보면 “歲丙寅 仲夏라.”<sup>22)</sup>라 되어 있어 이것은 英祖 22年(AD 1746年)에 著述되어 運氣衍論이 먼저 著述刊行된 後 雜錄을 包含한 用藥部分이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部分을 合하여 草窓訣이라 한 것 같다. 그러나 草窓訣이라는 名稱이 直接 尹東里가 붙인 것인지 後歲人이 그의 號를 빌어 運氣衍論과 用藥을 包括하여 붙인 것인지는 確實치 않다. 草窓訣은 筆寫本으로 尹氏家門에 家傳되어 왔으며 最近 1975年 牙山郡 漢醫師會에서 冊으로 刊行하였으나 誤字가 많아 訂正하여 1980年 靑丘 韓醫學研究會에서 刊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尹氏家傳 外에도 韓獨醫藥博物館에 筆寫本이 所藏되어 있으며 日本에서 三木榮氏가 所藏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三木榮 : 上揭書, p. 224, p. 378.

15) 三木榮 :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大阪, 소화48年, pp. 121~122.

16) 尹東里 : 上揭書, p. 31.

17) 上揭書, p. 1.

18) 金信根 : 韓醫藥書巧, 서울大學校出版部, 서울, 1989, p. 417.

19) 柳洪烈 : 韓國史大辭典, 教育出版公社, 서울, 1981, p. 1484.

20) 尹東里 : 上揭書, p. 1.

21) 上揭書 : p. 31.

22) 上揭書 : p. 32.

## 2) 草窓訣의 書誌學的 意義

東洋醫學에서의 五運六氣學說의 起源은 黃帝內經의 運氣七篇에서 비롯된다.<sup>23)24)</sup> 內經의 運氣七篇은 唐代 王冰이 補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運氣學說의 定立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다 할 수 있다.<sup>25)</sup> 特히 宋代의 性理學의 發達과 더불어 더욱 隆盛하여졌다.<sup>26)</sup> 宋의 元符 2年 (1099年)에 劉溫舒가 素問入式運氣論奧를 著述하여 朝廷에 上呈되었고 王安石의 變法以後 運氣學說은 太醫局에서 醫師를 뽑는 試驗科目의 하나가 되어 더욱 盛行하였다.<sup>27)</sup>

우리 나라에 運氣學說의 到來는 高麗時代로 보고 있다.<sup>28)</sup> 高麗末에서 朝鮮初에 이르러 醫家들은 이 學說을 信奉하고 許浚의 東醫寶鑑에서도 運氣에 대해 詳述하고 있으며 後에는 人體의 生理, 病理를 모두 五運六氣로 理解하려 하고 그 治療도 이것을 應用하려는 醫學의 一派가 있었다. 이 學說을 運氣醫論이라 하고 醫家들을 運氣醫라 불렀다. 우리나라에서 運氣醫論을 처음으로 記錄한 것은 亦是 東醫寶鑑 雜病卷一에 보이며 이는 天地運氣와 六十歲의 主客에 따른 民病에 對해 論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當時流行한 傳染病에 있어서도 運氣와의 相關性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時代의 背景 아래서 當時 運氣醫가 相當數 있었다 한다. 一例로 英祖時 領議政이었던 崔奎瑞는 運氣에 能通한 者였다 한다.<sup>29)</sup> 尹東里의 草窓訣은 이 分野의 우리나라 最初의 專門書로 評價된다.<sup>30)</sup> 構成은 大略 두 部分으로 하나는 運氣衍論으로 주로 五運六氣의 內容을 싣고 生年 및 疾病과의 關係를 說明하고 또 하나는 用藥으로 運氣에 따라 定해진 治療法을 敘述한 것이다. 草窓訣의 運氣衍論의 序文을 보면 “是誠軒岐之心法이오 華扁之正統而 不能形諸言筆諸書者也어늘 奈何俗醫 不知運氣爲甚件物事하고 徒以症形藥方이 葫蘆之하야 衆口 咻之曰 晬日之兒 豈有心火之理며 三尺之孩 安病腎虛之道乎리오하야 至死而不知悔하고 病家도 亦不以爲咎하니 其爲醫門之病弊라 可勝嘆哉아 一紀之內에 天運地氣 每每不均하야 或旱或雨하야 過風過寒 則人之一身은 稟天地之至靈者라 豈無虛實之應於臟腑之內而雖半午之寒感과 毛孔之小腫이라도 何者有外於運氣之理乎리오 吾所以詳論甲乙二氣之理者는 將欲使後學으로 細於十千之病하야 當如斯然後에 可推故也라 後之有志於醫者……”<sup>31)</sup>라 하여 時俗醫家들이 不知運氣함을 痛嘆하고 但只病形에 따라 治療함으로 醫者의 役割을 堪當치 못함을 痛烈히 批判하고 治病에 있어 運氣를 잘 알아야 함을 強調하고 後學을 爲해 運氣衍論을 著述한다는 뜻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草窓訣의 內容에는 運氣에 따른 處方만이 아닌 誤治에 對한 많은 規範을 後人에게 남겨주고 있다.<sup>32)</sup> 흔

23) 王琦等：運氣學說의 研究與考察，知識出版社，北京，1989，p. 190.

24) 洪元植：中國醫學史，東洋醫學研究院，서울，1984，p. 146.

25) 上揭書，p. 48.

26) 上揭書：p. 140.

27) 上揭書：p. 147.

28) 金斗鍾：韓國醫學史，探究堂，서울，1981，p. 165.

29) 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上揭書，pp. 337~378，p. 99.

30) 金斗鍾：上揭書，p. 349.

31) 尹東里：上揭書，p. 1.

히 草窓의 論法이 때로 運氣에 치우쳐 있다고 批判하나 우리 나라의 最初의 運氣學說을 詳細하게 敘述한 專門書로서 評價될 수 있다.

### Ⅲ. 結 論

李朝 肅宗에서 正宗 때까지 運氣學說로 醫學的 運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儒醫 尹東里(1705~1784)의 生涯와 現存하는 그의 著書 草窓訣에 對해 簡略히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尹東里의 字는 子美, 號는 草窓이며 李朝 肅宗 31年 乙酉年(1705年)에 出生하여 正祖 8年 甲辰年(1784年)에 八十歲의 나이로 卒했던 儒醫였으며, 三世의 醫家집안에서 자랐으며 그의 季父 尹雨教(農村先生)에게서 醫學을 배웠으며 父親 尹頤教(讀易齋先生)로부터 間接的 影響을 받았으리라 思料된다.
2. 尹東里는 明代 儒醫 劉溥가 宋代 性理學者 周濂溪를 恒常 思慕하여 窓 앞에 草를 除去하지 않아 스스로 號를 草窓이라 하였는데 이를 尹東里가 따라 號를 草窓이라 했다.
3. 草窓訣의 主要 構成部分인 運氣衍論은 英祖 1年 1725年 尹東里의 나이 21歲 되던 해 著述했으며 冊으로 刊行은 그 後 11年 뒤 1736年 英祖 22年 1746年 여름에 著述하였다. 이로 보아 두 部分이 한번에 著述된 것이 아니라 먼저 運氣衍論이 著述된 後 用藥을 著述하여 後에 合하여 草窓訣이라 한 것으로 思料된다.
4. 草窓訣은 運氣學說로 論한 우리 나라 最初의 專門書이다.
5. 草窓訣의 內容 中 後世方에 對한 誤治에 關해 많은 規範을 記錄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1. 金完熙: 漢醫學原論, 서울, 成輔社, 1983.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3. 韓東錫: 宇宙變化原理, 서울, 杏林出版社, 1990.
4. 尹東里: 草窓訣, 서울, 漢城出版社, 1980.
5. 坡平尹氏魯宗派譜刊行委員會: 坡平尹氏魯宗派譜, 大田, 農經出版社, 1983.
6. 許浚: 國譯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69.
7.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深究堂, 1981.
8. 李殷八: 醫窓論巧, 서울, 醫藥社, 1976.
9. 白南喆: 五運六氣學, 서울, 翰林醫學社, 1979.

32) 李殷八: 醫窓論巧, 醫藥社, 서울, 1976, p. 64.

10. 柳洪烈：韓國史大辭典，서울，教育出版社，1981.
11. 周易傳義大全：서울，保景文化社影印，1986.
12. 姜鎮春·金弘起：內經運氣學正解，서울，大星文化社，1990.
13. 金信根：韓醫藥書巧，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1989.
14.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서울，東洋醫學研究院，1985.
15. 金海秀：國譯運氣學講義錄，京城，朝鮮基督教彰文社，1974.
16. 尹錫烈：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慶熙大學校大學院，1987.
17. 王琦 外 黃帝內經素問今釋，서울，成輔社，1982.
18. 王琦 等：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北京，知識出版社，1989.
19. 張介賓：類經(圖翼)，서울，成輔社，1982.
20. 陳言：三因極一病症方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21. 李梴：國譯編註醫學入門，서울，南山堂1980.
22. 權依經·李民聽：五運六氣詳解與運用，甘肅，甘肅科學技術出版社，1988.
23. 謝觀：東洋醫學大辭典，서울，高文社，1987.
24. 楊力：周易與中醫學，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1989.
25. 三木榮：朝鮮醫書誌，大阪，學術圖書刊行會，소화 48年.
26. 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大阪，富士精版印刷，1963.